

2020년 5월 14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경기 회복 지연과 신용 리스크 부각되며 하락 파월, “경기 회복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완화 정책 장기화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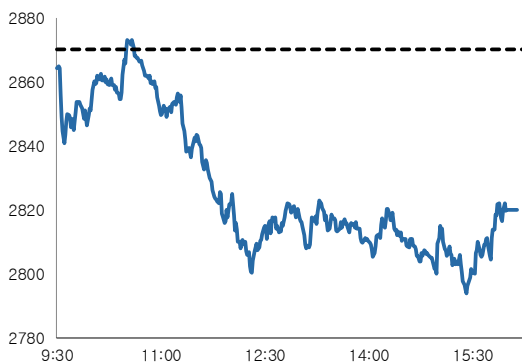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파월 발언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발표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비록 장 초반 파월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상승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파월 발언 중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 받아들임. 이런 가운데 전일 피치가 코로나로 인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과 미-중 무역마찰 확대되자 낙폭 확대(다우 -2.17%, 나스닥 -1.55%, S&P500 -1.75%, 러셀 2000 -3.32%)

파월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 경기 회복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 특히 회복 지연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줘 일자리 복구도 제한 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 파월 연준 의장은 회복 지연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지급 능력 문제로 바뀔 수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 또한 언급. 연 4 만 달러 미만의 가구는 이미 40%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해 이러한 신용 위험이 확산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시장은 파월 발언에 대해 처음에는 경기 회복 지연과 마이너스 금리 고려 안한다는 주장에 하락하기도 했으나, 추가적인 정책 도구를 언급하자 상승 전환하기도 했음. 이런 가운데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가 항공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은 2023 년까지 지연 될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재차 부각 시키자 본격적으로 주가지수 하락.

여기에 전일 피치가 코로나로 인해 올해 들어 405 곳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고 이는 지난 20 년 평균을 4 개월만에 넘어서는 등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 결과 금융주 및 중소형주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의 낙폭이 더욱 확대. 더불어 에봇의 검사장비가 1/3 코로나 양성 환자를 놓쳤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 우려가 부각 된 점, 트럼프의 코로나 발병의 중국 탓 발언,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백신 연구 해킹 시도 했다는 미 정보 당국의 발표로 인한 미-중 마찰 등 악재성 재료가 지속되자 지수의 조정이 지속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0.95	1,940.42	홍콩	24,180.30	-0.27	24,180.30	-0.27
KOSDAQ	+1.07	691.53	영국	5,904.05	-1.51	5,904.05	-1.51
DOW	-2.17	23,247.97	독일	10,542.66	-2.56	10,542.66	-2.56
NASDAQ	-1.55	8,863.17	프랑스	4,344.95	-2.85	4,344.95	-2.85
S&P 500	-1.75	2,820.00	스페인	6,631.40	-1.94	6,631.40	-1.94
상하이종합	+0.22	2,898.05	그리스	590.84	-0.97	590.84	-0.97
일본	-0.49	20,267.05	이탈리아	17,183.44	-2.14	17,183.44	-2.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5% 하락

코로나 진단 장비 업체인 에봇(-1.75%)은 확진자 중 1/3이 누락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으로 하락했다. 이 여파로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라스베가스 샌즈(-3.35%), MGM(-8.38%), 윈 리조트(-2.40%) 등 리조트 카지노 업종과 부킹닷컴(-1.43%), 익스피디아(-4.59%) 등 여행 업종이 급락했다. 여기에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운송량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델타항공(-7.70%) 등도 코로나 우려 등과 더불어 급락했다.

더 나아가 피치로 인해 발생한 신용 리스크 우려로 코로나 피해 업종의 낙폭이 더 컸으며, JPM(-3.45%), BOA(-4.57%), 웰스파고(-6.28%), 씨티그룹(-4.13%) 등 금융주와 엑손모빌(-4.96%)은 물론 코노코필립스(-4.06%), 옥시덴탈(-7.82%) 등 에너지 업종이 급락했다. 한편, 미-중 마찰이 확산되자 보잉(-2.97%), 3M(-3.82%), 나이키(-2.54%) 등과 TJX(-4.20%), 로스스토어(-3.35%) 등도 급락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론(-4.73%), 브로드컴(-1.97%)은 물론 애플(-1.21%) 등도 무역 마찰 우려로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6.95%	대형 가치주 ETF(IVE)	-2.30%
에너지섹터 ETF(OIH)	-8.47%	중형 가치주 ETF(IWS)	-3.05%
소매업체 ETF(XRT)	-2.68%	소형 가치주 ETF(IWN)	-4.03%
금융섹터 ETF(XLF)	-2.96%	대형 성장주 ETF(VUG)	-1.36%
기술섹터 ETF(XLK)	-1.68%	중형 성장주 ETF(IWP)	-2.3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9%	소형 성장주 ETF(IWO)	-2.80%
인터넷업체 ETF(FDN)	-1.52%	배당주 ETF(DVY)	-2.71%
리츠업체 ETF(XLRE)	-1.5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7%
주택건설업체 ETF(XHB)	-3.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2%
바이오섹터 ETF(IBB)	-1.11%	미국 국채 ETF(IEF)	+0.21%
헬스케어 ETF(XLV)	-1.08%	하이일드 ETF(JNK)	-0.59%
곡물 ETF(DBA)	-1.24%	물가연동채 ETF(TIP)	+0.09%
반도체 ETF(SMH)	-1.77%	Long/short ETF(BTAL)	+1.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0.52	-4.39%	-1.87%	+10.26%
소재	313.24	-2.18%	-0.83%	+2.52%
산업재	498.43	-2.56%	-3.09%	-3.00%
경기소비재	920.32	-1.21%	-0.41%	+3.60%
필수소비재	583.95	-0.91%	-0.15%	-3.96%
헬스케어	1,146.87	-1.10%	-0.43%	+1.91%
금융	342.14	-3.01%	-3.30%	-4.75%
IT	1,613.48	-1.69%	-0.28%	+5.41%
커뮤니케이션	168.32	-1.62%	-0.34%	+4.09%
유틸리티	278.65	-0.90%	+0.14%	-6.41%
부동산	192.42	-1.61%	-4.39%	-7.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매물 출회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8%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9%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7.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주요 지수 중 투자심리를 알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전일 3.46% 급락에 이어 오늘도 3.32% 하락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전일에 이어 오늘도 미국 금융주 및 중소형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점을 감안 한국 증시 또한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과 중국간 코로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백신 임상 관련 중국의 해킹 시도 관련 미 정보 당국의 발표는 미-중 마찰을 더욱 격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회복 지연 발언은 외국인의 매물 출회 지속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물론 미 증시 마감 후 미 중앙 임상학회 초록이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 관련 종목들의 투자심리가 우호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증시가 2% 내외 급락한 점은 부담을 줄 수 있어 한국 증시는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물가 하락 지속

4 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3% 하락해 예상(mom -0.3%)을 하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3% 하락 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0.6% 상승에 그쳤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안전자산 강세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 결과 예상(470만 배럴 증가)과 달리 75만 배럴 감소했고 오클라호마 쿠싱지역 재고도 3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하락했다.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 회복 지연 발언과 OPEC 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223만 배럴 더 하향 조정한 점이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 회복 지연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시사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그 폭은 제한되었다. 이후 미 증시가 급락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유로와 파운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물가 하락폭 확대, 미 증시의 급락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특히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 회복 지연을 언급해 장기물의 낙폭이 더 컸으며 단기물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낙폭이 제한되었다. 한편, 3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은 12개월 평균(2.31배)와 비슷한 2.30배를 기록했으며 간접입찰은 12개월 평균(61.2%)를 상회한 65.7%를 기록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중국의 부양정책 기대로 혼조 마감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4% 철근도 0.1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5.29	-1.90	+5.42	Dollar Index	100.228	+0.30	+0.14
브렌트유	29.19	-2.64	-1.78	EUR/USD	1.0818	-0.28	+0.21
금	1,716.40	+0.56	+1.65	USD/JPY	107.05	-0.08	+0.88
은	15,671	-0.24	+4.37	GBP/USD	1.2230	-0.24	-0.97
알루미늄	1,480.00	+0.17	-0.30	USD/CHF	0.9724	+0.30	-0.26
전기동	5,224.00	-0.62	+1.28	AUD/USD	0.6454	-0.26	+0.84
아연	1,975.00	-1.50	+2.97	USD/CAD	1.4097	+0.13	-0.35
옥수수	318.25	-1.24	+1.27	USD/BRL	5.8973	+0.19	+3.18
밀	501.75	-2.48	-3.04	USD/CNH	7.1118	+0.07	-0.25
대두	839.50	-1.47	+0.84	USD/KRW	1223.80	-0.08	+0.14
커피	105.05	-2.14	-5.02	USD/KRW NDF1M	1227.56	+0.08	-0.1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49	-1.59	-5.38	스페인	0.731	-5.20	-11.80
한국	1.392	-3.80	-12.30	포르투갈	0.835	-7.90	-13.30
일본	0.001	-0.10	+2.00	그리스	2.076	-6.40	-8.60
독일	-0.530	-2.50	-2.30	이탈리아	1.800	-8.70	-17.30